

지역 소식통

정읍새고을시장수산물

구매시온누리상품권 환급

정읍시가 정비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새고을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것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상품권 환급 장소는 새고을시장상인회 사무실 1층 고객센터(시거동 280-4)이며, 행사 기간 중 구매한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행사당 1인 1회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대리인 환급은 불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창군이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해리 양돈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되어 5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양돈시설(3664㎡ 규모)을 철거하고, 해리 작은목욕탕(남·여 분리),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양돈시설 매입절차를 완료하고, 폐업을 완료했다.

2027년 착공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폭염 종합대책 본격 가동

체감온도 35℃ 이상 이틀간 관측 시 '폭염중대경보' 발령·6932명 재난도우미 밀착 케어

정읍시가 지난 1일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포함한 세분화된 특보 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고, 취약계층 2만 8000여 명을 전담 도우미 6900여 명이 밀착 관리하는 폭염 방어막을 구축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읍의 최고기온은 37.8℃를 기록했고 온열질환자는 29명이 발생했다. 가축 피해도 65개 농가에서 8만 2674마리가 폐사해 약 13억 72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시는 이 같은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애초 5월 15일인 폭염 대책 기간을 5월 1일로 앞당겨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

시는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태스크포스)을 꾸려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2단계 특보 체계를 개편해 체감온도 35℃ 이상

이 이틀간 관측될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야간 무더위가 이어질 때를 대비한 열대야주의보도 신설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발효 시 564곳의 마을 방송 체계나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해 위험 상황을 알린다.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2만 8083명을 지키는 대책도 촘촘해졌다. 시는 6932명의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을 자료통계(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도우미들이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즉각 확인한다. 더위를 피할 공간 마련과 물품 지원도 대폭 늘렸다. 시내 곳곳에 지정된 실내 무더위쉼터 475곳을 개방했다. 이 가운데 259곳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병방기 분해 청소를 마쳤다. 시민

들의 갈증을 덜어주고자 버스승강장이나 근린공원 같은 유휴 인구가 많은 장소에 얼음 생수 9만 개를 둔다. 무더위쉼터에도 생수 2900상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감지기를 통해 자동으로 퍼져가나 접하는 지능형 그늘막(스마트그늘막) 2곳을 새로 설치해 총 88곳의 그늘막을 가동한다.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시행해 건설 현장 작업이나 농사일을 쉬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기술 지원단을 파견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돕는다. 아울러 이웃 가족을 챙기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캠페인을 함께 펼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후 첫 결재로 2026년 상반기 335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시정 현안과 핵심 사업을 직접 살폈다.

정읍시장, 민선 9기 출범 본격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후 첫 결재... 335개 추진사업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후 첫 결재로 2026년 상반기 335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시정 현안과 핵심 사업을 직접 살피며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점검은 시정 현안과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사업 추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예산 확보 상태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완점을 빠르게 찾고, 이를 바탕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전체 대상 사업 가운데 333건(99.4%)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균 진행률은 56%를 기록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남은 과제들 역시 속도를 높여 이른 시일 안에 마칠 예정이다.

상반기에 완료된 대표적인 성과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성사거리 교동 체계 개선이 꼽힌다. 아울러 시립

도서관 무장애(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행정 전화 녹취 체계 구축, 민원 서비스 전산화(디지털화) 기반 마련, 공공직불금 확대, 귀농·귀촌 지원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일부 대규모 투자 사업은 관계 기관 협이나 재원 확보 절차 탓에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동안 집중적인 점검과 책임 관리를 병행해 추진력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께서 보내주시신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당선 후부터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발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중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무장읍성 앞 새 쉼터, 카페 '우리들의 무장' 정식 오픈

무장읍성 뷰·특산물 활용 메뉴

고창군이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무장 복합문화센터'가 지난 1일 카페 '우리들의 무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카페 '우리들의 무장'은 기존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무장읍성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고창군 대표 뷰맛집 카페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고창 땅콩을 활용한 '고창 피넛 크림 라떼'와 고창 군고구마를 활용한 '고창 군고구마 비스코티' 등을 선보이며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 사업'은 2016년 사업을 시작해 무장읍성 일원에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입하여 관광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025



년 사업을 완료했다.

고창군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고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시설을 민간에 위탁했고, 운영 전 현장에서 무장면민들과 논의하고 소통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앞으로도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커피와 디저트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차별화된 먹거리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시, '깨끗한 축산농장' 17곳 신규 지정... 지역 내 총 282곳 운영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2분기 '깨끗한 축산농장' 평가에서 지역 내 17개 농가가 새롭게 지정받아 총 282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가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축사 안팎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해 악취 발생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요건은 엄격하다. 가축 사육 밀도 준수를 비롯해 가축 분뇨의 적절한 처리, 주변 환경과 조화 등 전반적인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가축 종류별 평가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을 얻어야 최종 자격을 얻는다.

시는 지정 농가에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각종 축산 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해 농가들이 먼저 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이끌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뒤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축산환경e로움 시스템'에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변산해수욕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기 운영

오늘부터 개장·운영 돌입

부안군은 2026년 변산해수욕장 개장 전 관광객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조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변산 스토리센터 옆에 위치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른 무더위에 맞춰 오는 5일부터 선제적 운영에 돌입한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오는 7월 3일 변산해수욕장 정기 개장 전부터 방문객들을 미리 맞아 8월 17일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1시~3시, 오후 3시 30분~5시까지



지 총 3타임으로 운영된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기 운영은 관내 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나아가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타 해수욕장과의 차별화된 홍보 효과 등 다각적인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with her hands, looking distressed. The text encourages reporting child abus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hild Protection Center (112). Key points include: reporting is possible and helpful, reporting helps protect children, and reporting is a civic duty. Contact: 112, or local child protection centers.